

누 가 준비 되어 있는가

지난 10월 미국집권자는 《폭스 뉴스》와의 회견에서 《우리는 북조선문제를 관련하여 어떠한것도 준비되어있다》,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하고있는지 알면 큰 충격을 받을것이다》라고 말 장난을 또다시 늘어놓았다.

자기의 《기》와 미국의 힘을 과시하는 위협적인 망언은 무지하고 몽매한 인간의 희미운 너스레에 지나지 않는다.

한 인간의 무지는 그 자신의 운명을 그르치지만 집정자의 몽매와 무능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파멸로 몰아간다. 조미사회의 대결장에 나선 이상 미집권자는 마땅히 조선에 대해 잘 알아야 할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똑똑히 모르고 있다는데 트럼프와 미국의 비극이 있다.

조선은 정도자와 인민이 일심일체를 이룬 나라이다. 인민을 위해 바치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헌신이 고결하고 펼쳐지는 정치에 정의 넘친다.

그분께서는 얼마전에도 새로 개건된 평양화장품공장을 돌

아보시면서 보다 아름다워지려 하는 녀성들의 꿈을 실현시켜 줄수 있게 되었다고, 현대화, 과학화, 공업화된 공장에서 솜을 받아안고 좋아할 우리 녀성들, 우리 인민들을 생각하니 정말 기쁘다고 하시었다고 한다. 한 나라의 정도자께서 녀성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의 질과 생산량까지 알아보시었다니 인민에 대한 그의 헌신과 사랑을 느낄수 있다. 그 헌신과 사랑에 고마움을 금치 못하는 인민의 애국충정 또한 진실하고 열렬하여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들을 창조하고있는것이 조선의 현실이다. 정도자의 애국의 구상을 인민이 받들어 알찬 열매들로 주렁지게 하는것이 조선의 모습이다.

이런 특이하고 감동적인 일심단결을 가리켜 조선인민은 핵무기보다 더 강한 절대병기라고 말하고있다.

조선은 미국의 그 어떤 위협

과 침공에도 다 대처할수 있게 모든 준비가 다 갖추어진 나라이다.

지난 세기 60년대에 벌써 자위를 위해 경제건설과 국방 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신을 채택하고 군력강화에 큰 힘을 넣어왔으며 전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였다.

전쟁은 단지 무장장비만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다. 전쟁의 승리를 결정하는 기본요인은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에 있다.

그 정신력에서 조선의 군대를 따를 군대는 이 세상에 없다. 자기 정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간직하고 결사옹위의 구호를 심장으로 웨치며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것이 조선의 군대의 강한 정신적기질이다.

조선이 벌리고있는 오늘의 반미최후대결전에는 군대만이 아니라 온 나라 인민이 다 떨

쳐나섰다.

지난 9월 조선의 《절멸》을 떠든 미국집권자의 오만 방자하고 분별없는 망언은 전체 인민의 분노와 적개심을 유발시켰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성명이 발표되자 며칠만에 전국적으로 수백만명의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군대 입대와 복대를 탄원 한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서도 잘 알수 있다.

온 나라에 타번지고있는 반미항전열기는 주권국가로 없애버리겠다고 력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한 악의 제국인 미국을 행성에서 영영 쓸어버리고야말 강용한 국민의 천백배 보복의지의 분출인것이다.

영국의 한 군사출판물에 실린 《제국과 전면전쟁을 할수 있는 군사강국》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미국의 강대한 군사력에 대비할수 있는 무장장비를 가

진 군사대국들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미국과 직접 맞서싸우려는 전쟁의지의 측면에서 보면 조선은 다른 군사대국들과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만일 미국이 선제공격을 가하는 경우 미국과 전면전쟁을 벌려 승리할수 있는 진짜 강국은 조선뿐이라고 생각한다.》

서방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엄연한 현실을 미국은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된다. 조선인민의 타오르는 반미중주의 불길에 트럼프는 기름을 들붓는 어리석은 언행을 삼가해야 한다.

트럼프는 《어떠한것도 준비되어있다》고 했지만 그런 허세가 조선에는 통할수 없다. 력대 미국대통령들중에서 제일 낮은 지지률에 머물고있으며 극심한 탄핵위기에 시달리고있는 트럼프로서는 제 처지 에나 신경을 써야 할것이다.

트럼프의 대조선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인 국정지지도보다 더 낮다.

얼마전 《워싱턴 포스트》와 ABC방송이 발표한 공동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선에 개입하는 트럼프를 신뢰한다는 반응은 고작 32%에 불과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응은 67%로 《신뢰한다》는 반응의 배가 넘었다. 이같은 반응은 《화염과 분노》, 《완전 파괴》 등 전쟁을 암시하는 자극적표현을 구사하는 트럼프때문에 미국인들이 불안을 느끼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트럼프가 조선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아시아방문길에 있는 지금도 미국내에서는 반트럼프시위들이 그칠새 없고 충격적인 총격사건이 또 발생하여 수십명이 죽는 등 아비규환의 지옥이 도처에서 펼쳐지고있다.

이것이 《준비되어있다》는 트럼프의 실체이고 미국의 험악한 실상이다.

미국으로서는 조선의 의지를 꺾을수도 없고 이길수도 없다.

재로씨야동포 김 정 진

전쟁파괴의 무서운 무서운 파괴력

남조선의 군부 호전광들이 극도의 북침현황에 빠져 무모한 군사적대결관행을 계속 부리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 호전광들이 제주도주변해상에서 미국뿐 아니라 오스트랄리아 해군까지 끌어들이 대량살상무기 전과차단을 위한 《연합해양차단 훈련》을 벌린것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뿐만아니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서해열점수역에서 해병대무력을 동원하여 미국과 함께 《해병대연합항공화력유도훈련》이란것도 벌려놓았다.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정세를 끊임없이 긴장국면으로 끌고가면서 민족의 머리에 핵전쟁구름을 몰아오려고 미친듯이 날뛰는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무지막지한 대결망동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하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호전광들이 이번 제주도주변해역에서 미국뿐만아니라 추종국가군대무력까지 끌어들이 《연합해양차단훈련》을 벌린것은 《대량살상무기 전과》 방지라는 미명하에 공화국에 대한 해상봉쇄를 실현하며 나아가서 미국이 추구하고있는 아시아관 《나토》구축책동에 적극 합세하려는것으로서 극히 모험적이고 도발적인 행위이다.

미국이 21세기 저들의 운명이 아시아태평양지역 배전략을 실현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보고 그 실현을 위해 아시아관 《나토》를 조작하려고 획책하고있는것이 미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이 일본, 남조선과의 군사협조와 동맹관계 강화의 당위성에 대해 요란스레 광고하면서 주구들을 압박하여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맺게 하고 《북조선미싸일위협》을 구실로 지난해부터 도발적인 미싸일정보 훈련을 계속 벌려놓고있는 사실도 그것을 잘 말해준다.

남조선호전세력이 제

주도해역에서 《연합해양차단》 훈련을 벌린것은 남의 힘을 빌어 동족을 한사코 해치려는 매국역적들의 흉악한 물골을 다시금 날날이 드러내 보이고있다. 남조선군부세력이 군사적으로 매우 예민한 지역인 서해 열점수역에서 미국상선과 함께 《해병대연합항공화력유도훈련》을 벌린것도 침에한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려는 고의적인 군사적도발행위이다.

이불길 보아가며 발을 떠라는 말이 있다.

오늘 공화국의 군사적 위력은 지난 세기 50년대와는 비할바없이 장성강화되었다.

미국의 핵패권에 당당히 맞설수 있는 실질적수단을 다 갖춘 공화국을 상대로 도발행위들을 계속 벌려보아야 그것은 죽음의 함정을 제가 파는 격이다. 연합훈련에 미국과 추종국가군대들을 모두 끌어들이는 해도 공화국의 군대는 눈설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남조선호전광들은 만사람의 조소를 자아내는 부질없는 객기를 그만 부려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주 광 일

남조선의 통일부가 개성공업지구 기업인들의 《방북신청요구》에 대해 횡설수설해대고있다.

얼마전 남조선 통일부장관은 《북측에서 우리 기업인들의 방북신청승인이 필요한 신변안전보장과 동행관련조치들을 취해줄것을 요청한다》고 발표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개성공업지구법이나 투자보장합의서 등을 믿고 투자한 것》이며 따라서 《북측이 기업자산을 훼손한다면 그것이 불법적인 침해로 된다는것을 다시한번 분명하게 지적한다》는 황당한 수작까지 늘어 놓았다. 또한 그는 《기업인들의 방북추진은 개성공단재개와는 무관하게 자산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며 《공단재개는 북핵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전환된 이후에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문제》라고 하면서 현시점에서 개성공업지구재개등은 있을수 없다는 저들의 불순한 속내도 내비쳤다.

한편 남조선당국은 언

론을 내세워 개성공업지구 기업인들의 《방북신청》과 관련한 저들의 요청에 대해 《북이 계속 묵묵부답하고있다》고 떠들어대고있다.

이 모든것은 개성공업지구폐쇄 및 재가동, 피해보상문제를 놓고 저들에게 쏘리고있는 입주기업들과 각계의 규탄의 화

의 반공화국제재소동에 누구보다 앞장서고있다는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이다.

이러한자들이 《방북문제》를 입에 올려대는것이야말로 언언도단이고 파괴적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저들의 대결망동으로 북남관계가 딱 막혀버렸는데 오고갈 사람이 누가 있다고 《신변안전담보》를 요구하며 드러나들 길어 어디 있다고 《동행보장》을 담보해달라고 어리석게 늘어대고 있는가.

개성공업지구가 폐쇄되어 공화국의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된 이상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땅을 넘겨다 볼 처연도 없고 허바닥을 놀려들 자격도 없다.

남조선당국은 가을베꾸기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주제넘게 늘어대것이 아니라 미국과 야합하여 벌리는 전쟁분장난과 추악한 동족대결책동부터 걸 어치워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영 진

구차한 오그랑수

살을 다른데로 돌려보려 구차한 오그랑수이다. 개성공업지구를 전면중단시키고 기업가들까지 강제로 철수시킨것이 과연 누구인가.

북남협력의 동음을 울리며 잘 돌아가던 공업지구사업을 일방적으로 개버림으로써 개성공업지구법과 투자보장합의서를 하늘로 날려보낸것은 다름아닌 남조선당국이다. 이것은 개성공업지구의 경영권과 재산소유권, 출입자격, 신변보호권리 등 모든 혜택을 남조선당국이 스스로 포기한것으로

당한 자주권행사를 걸고들며 북남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개성공업지구를 결판낸 박근혜정권의 대결망동과 조금도 다를바없는 행위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것은 미국상선에 추종하여 《최고의 압박과 제재》를 고아대는자들이 그 무슨 《방북문제》를 떠들고있는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을 끌어 들여 북침핵전쟁연습소동에 광분하고 동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한 미국

깡패식객의 비위를 맞춘다

깡패를 집에 끌어들이고 비위를 맞추느라 《선물보따리》까지 섬겨 바치는 열간망둥이는 세상을 둘러봐도 흔치 않은 것이다.

지금 남조선당국이 그렇게 억스럽게 늘어대고 있다.

세인이 조소하는 미치광이 트럼프의 환심을 사보려고 이것저것 고안해본던 중 그에게 안겨줄 《선물보따리》로 얼마전 펼쳐놓은것이 그 무슨 《대북독자제재안》이라는것이다.

이 《대북독자제재안》의 내용을 보면 미국 재무부가 9월에 《제재대상》에 올린 공화국 금융기관관계자 26명가운데서

18명을 저들의 《제재대상》으로 제지명하는것으로 되어있다.

지금 남조선의 언론들은 북남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이번 발표는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에 의미를 둔것이다, 트럼프의 방문을 앞두고 미국에 《공조》의지를 보여주어 환심을 사기 위한 조치라고 평하고있다.

사실 미국의 폭투각시에 불과한 남조선이 그 무슨 독자성을 떠들며 생색을 내뱉야 누가 뜨끔이나 하겠는가.

이런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의 객적은 놀음을 벌려놓고서도 남조선당국은 이번 《독자제재》가 《북의 대량살상무기개발

과 주요 외화수입원을 차단하는데 기여할수 있을것》, 《북과의 거래위협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데 효과가 있을것》이라는 너드리를 늘어놓으며 어처구니없게 늘어대었다.

남조선당국이 이번에 상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아무런 실효도 없는 대결보따리를 고안해냈지만 그것으로 해서 동족앞에 씻을수 없는 최악만 덧쌓았다.

남녘민중이 저주하고 반대하는 깡패식객을 위해 추악한 친미굴종의 동족대결망동을 저지른 남조선당국은 그 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련 옥

제재소동에 바람을 불어넣으려는 모략

대조선제재압박책동에 여념이 없는 적대세력들이 마치 제재소동이 《효과》를 보는듯이 떠들어대고있다.

미국은 보수적인 전문가들과 언론들을 내세워 유엔 《제재결의》 2375호가 조작된 후 《경제적압박이 먹혀들고있다》고 떠들고있으며 미국에 추종하는 서방정객들도 《제재로 북조선이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꾀변들을 늘어 놓고있다.

5일 미국무장관 힐러슨과 일본의상 고노는 회담에서 《대북경제제재를 비롯한 압력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인식을 함께 하였다》고 떠들었다. 남조선당국과 보수언론들도 그 무슨 《대북제재효과》에 대해 뉘적대고있다.

참으로 궁색한 너드리라 하지 않을수 없다.

지금 세인이 주목하는 것처럼 공화국은 그 누가 제재를 하든 압박을 가하든 끄떡없이 할 일은 하고갈 길은 가며 자기의 리상향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이 아무리 소동을 퍼워대도 이 땅에선 가는 곳마다에서 현대화의 동음이 더 높고 울리고 인민의 창조물들이 키를 솟구며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있으며 해빛밝은 창가마다에선 아이들의 노래 소리 즐겁게 울려 퍼지고 있다.

얼마전에도 동해지구 원산시에 원아들을 위한 또 하나의 멋쟁이궁전 이 일떠섰고 녀성들을 위해 평양화장품공장이 훌륭히 새로 개건되어 인민들의 기쁨을 더해주고 있다.

이것이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이 떠드는 《제재효과》라는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

살을 투시해볼줄 아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화국에는 절대로 제재와 압박이 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있다. 지금 국제사회와 적대세력내부에서도 《대북제재무용론》이 울려나오고 조선의 핵보유국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갈수록 커지고있는 형편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대북제재효과》를 떠드는것이야말로 공화국의 노도와 같은 승리적전진에 질겁한자들의 궁색한 너드리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을 비롯한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은 이제라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에는 부당한 제재와 압박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제재압박책동은 어리석고 부질없는것이며 그의 궁극적 파산은 불가피하다.

리 선 희